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공부 성불하기 위한 정진 돼야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자비의 생산윤리

생산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인가. 생산이 없이는 인간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기불경에서는 두 가지의 생산 방식을 역설하고 있다. 정신적인 생산과 물질적인 생산이 그것이다. 정신적인 생산은 주로 출가자들에게 위임된 일이었다. 반면에 물질적인 재화의 창출은 재가자들의 몫이었다. 재가자가 재화를 보시하여 교단의 경제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출가자는 법답게 수행하여 일어진 정신적 경작물을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설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출가자는 육체노동에 전념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선 출가자들의 정신적 경작을 중심으로 이 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물질적인 생산이 아닌 정신적 생산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출가 제자들에게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출가수행자는 감각의 문을 굳게 닫고, 음식의 양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아가 금 등 재물의 소유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있다. 재물을 천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제법 팬장은 경지에 올라간 불교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런 사고의 이면에는 유교적인 계급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위진남북조 이후 중국불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토착화되며, 사농공상의 사회계급 속에서 물질적인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던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생경>에 의하면 당시의 인도사람들은 대단한 향락생활을 탐닉하고 있었던 것 같다. “황금과 재산이 있는 집은 즐겁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늙게나”라는 구절이 있다. 당시의 시대상황 묘사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들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불교가 욕망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생경>에서는 “돈이 비요듯 쏟아져도 인간들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적당한 절제를 말하고 싶은 뿐이다. 욕망의 절제가 재물에 대한 경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역설적으로 무의미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천박한 사람들의 행위라 말한다.

재산 형성 욕망에 적절한 절제 요구

소비엔 ‘자비실현’ 공동선 추구 의무

열반에 들어간 이후 100여년 지나 발생하게 되는 열 가지 비법의 논쟁 이전까지 철저하게 지켜졌다. 현재까지도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남방불교권 즉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권의 전통은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달리 물질적 생산과 소유를 인정한다. 이것은 교리의 재해석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활동공간과 인적교류의 확대는 인도사회를 넘어 주변 국가로 불교가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수반하여 적절한 교리의 재해석, 계율의 개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질적인 생산과 소유를 금지시켰던 부처님의 계율이 존재하는 한 출가자들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즉 상업과 농업, 목축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일 본인이나 누구를 시켜서 땅을 파거나 초목을 베는 일은 사타피에 해당하므로 교단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내기신도들에게 부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남기셨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 등의 불교신도들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재가자에게 재산의 축적을 인생의 바람직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도 말한다. <비나야사>에 의하면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에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고, 이미 얻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께서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나아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절제한 소비의 방지를 가르친다. 그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다. 사치나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노를, 여자, 술, 춤과 노래, 낚잡, 인색함 등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오르지 않고, 방탕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는 일은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이 분명하다.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철저하게 재물을 모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금융적 생활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도의 소비, 내지 지출 방안 속에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선의 추구라는 의무조항이 들어있다. 바로 이런 점이 자본주의와 불교가 다른 점이다.

<본지 삼일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불교는 인간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천지만물의 근원과 참 모습을 밝히는 가르침이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일체중생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때 상불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부이고 성불을 위한 정진이 되어야 합니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중국의 백장회해(百丈懷海, 769-814) 스님이 주창한 생산불교 또는 선농일치 정신의 핵심입니다. 백장 스님은 열반하기가 전까지 대중들과 함께 노동을 하며 선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연로한 백장 스님이 힘든 자신의 몸을 이끌고 노동을 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스님, 이제 쉬십시오.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며 스님의 노동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백장 스님은 “노승이 아무런 먹이 없으면서 어찌 제자들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느냐”며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제

중생은 마음의 밭 일구는 농부

하루 한 평씩 가꾸 꽃 피우세요

속되는 노동을 지켜 본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삼과 썰이를 숨겨 놓았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백장스님은 그날 저녁 저녁 공양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왜 저녁식사를 안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하루 일하지 않았으니 하루 먹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자들도 스님을 만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장 스님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찰의 재정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불교 교단에 노동을 수행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모든 선수행자는 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원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고 외부의 물질적 도움 없이도 선원을 꾸러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스님의 이같은 수도 규정은 훗날 선종 교단이 점점 집단화된 총림(叢林)의 체제에서 더욱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조리와 수행에 필요한 규칙들이 체계화되고 성문화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규(行規)’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강원에서 백장 스님의 청규를 접하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이치대로 사는 것이 불자의 행동 수칙

가만히 앉아서 신도들의 시주를 받으며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원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있어도 이같은 생각이 펼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전 이곳 문수사에 들어와 농사도 짓고 양봉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굳이 백장 스님의 청규를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말하는 부끄러운 점이 있으나 지금까지 노동을 통해 수행에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참선과 농사를 병행해 온 혜향 스님은 “마음 밭을 가꾸는 일이 가장 큰 농사”라고 말한다.

이곳 문수사에 들어오기 전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사하촌에 사는 처사에게 양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수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양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하촌 주민들과 함께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양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천초목이 불발 아닌 것이 없었고, 자연과 사람들이 동등중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려본 흑시 복전(福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논과 밭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과일 나무를 심어 과일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이 육신을 유지하고 남는 것은 팔아서 불사를 위해 사용했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無一 유학스님의 신간!

완벽한 참선법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대립화, 차별화하지않고 서로 보완, 통합시켜주는 참선법으로서 단계별 수련을 제시하고 있다.

4x6변형 / 칼라 256쪽 / 정가10,000원

출판사 **주은인연**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부속출판사

전화(053)475-3707 팩스(053)475-3706 E-mail buddhabook@hanmail.net

지정보살인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백 맑은 공기가 청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날이 갈수록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날 여승을 바탕으로 짚어지고 묵묵히 무릎기며 서을 시내 지하를 헤매다 나왔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행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천 지하를 돌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정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정보살님의 화엄화심을 영감하고 달마도를 통해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려 일만 여명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연의 00여파를 지어 놓고 번양을 못해 부모직전에 이른 수련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번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해 체결하여 입주해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묘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이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정보살님께 '이 땅의 번영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산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고된 고초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1857-4576, 0171430-5008
보현사 지명스님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방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음질, 실반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소리공방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임하는 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이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양도면담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대동승복 직원일동 -

주복	복	복	복
1. 직삼, 조끼, 바지 W160,000	2. 동방, 바지 W160,000	3. 두루막 W140,000	4. W60,000
5. 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W320,000 순면누비 W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W250,000 순면누비 W160,000	
잔누비	셔츠		
8. 셔츠 W60,000 (40~48, 라운드형) 바지 W70,000	린넨셔츠 W30,000 ~ W35,000	자리니셔츠	

* 직삼, 가사, 바지 및 셔츠류는 맞고무문 발송입니다.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상 백고좌

혜향스님

(구미 문수사 주지)



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밭을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면의 세계는 손으로 만지지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지금 정성으로 키우면 좋은 결과가 오는 이치는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해진 이치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들의 행동 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인과법을 알고도 악업을 짓기 바쁘고 연기법을 알면서도 남을 해치는 것은 성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밭을 일구는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체중생은 복밭을 가는 농부입니다. 그 복밭은 성불이라는 곡식을 심는 곳으로 정신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맑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복밭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복밭을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복적인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모두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오로지 청정한 마음만을 가지고 계시기에 부처가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이 전제되어야겠지요.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복을 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님들에게는 청규가 있듯이 중생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음을

5계라는 씨앗 마음에 뿌려

씩 틔우고 잘 키워서

‘성불의 곡식’ 거두도록 하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걸지 않을 것입니다. 쉬우면 계율로 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문제는 얼마나 튼튼한 지계정신으로 생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5계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3번만 해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5계를 지키면 당연히 내면의 수행이 됩니다. 내면의 수행이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과 극락이 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5계라는 씨앗을 마음에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하고 줄기를 키우고 뿌리를 내려서 성불이라는 곡식으로 클 수 있도록 자신의 농사를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생에서 더 좋은 복을 짓지 않으면 다 생은 불 보듯 뻔합니다. 열심히 참회하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복전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헛된 팡투기에 정신을 쏟을 것이 아니라 성불로 향한 복밭 가꾸기에 모든 인연을 몰두해야 진정한 불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불제자의 길에서 하루에 한 평씩이라도 복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본 혜향스님

스님과 약속한 시간에 문수사에 도착했지만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공양주보살에게 스님이 어디 가셨느냐고 묻자, “올라오다가 못 보셨어요. 밭에서 일하고 계시 텐데”라고 했다. 스님이 직접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에 다시 밭으로 가려고 하자 공양주보살이 스님에게 전화를 했다. 잠시후 나타난 스님은 희색 잡박에 목장갑을 낀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연신 웃음을 내 보이시는 스님의 모습이 마치 더 맑고 인자하신 시골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스님은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수행을 하고 계신다. 벼농사, 양봉, 과수원 등 안해 본 농사가

없다. 하지만 수행도 열심히다. 매일 투나뉘귀 들아가 뚫 살아가지만 하루도 묵탁을 손에 놓아본 일이 없다. 마을사람들의 스님의 존경심도 대단하다. 특별한 소식이 없었던 농가에 양봉 기술을 가

40여년 禪農 실천...지역불교 활성화 힘써

르쳐 주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스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아서다.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린시절 할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한마디로 구수하다고나 할까? 스님의 법문은 굳

이 말로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스님의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서 큰 법문이 되기 때문이다. 취재를 하면서 중국의 백장스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런 모습에 아날까 하는 생각을 펼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혜향스님은 1937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15세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했다. 16세에 상주 남

장사에서 화엄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부산 법어사 강원에서 5년간 수학했다. 그 이후 직지사 강원과 조계사 강원에서 간경진전 했고 1962년 지금의 문수사로 들어와 현재까지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지역불교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4)

삶의 진실을 찾는 자는 언제나 한 번은 떠돈다. 자기를 극복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자기 안에 머물러서는 진실을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은 무장처의 만행으로 수행자의 발길을 이끈다.

천호스님은 단기 사방을 마치고 다시 산사로 돌아왔다. 23세의 나이. 산사에 맞추어 그의 의식은 지엄하게 살아 날마다 그에게 물을 던졌다. 출가와 수행. 머뭇머뭇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를 다시 길 떠나게 했다. 십대에 그가 먼 길을 걸어 출가를 결행했을 때의 문제의식들은 여전히 그에게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결망을 꾸려 산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편보다 크게 꾸러진 결망은 그의 만행이 아주 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무래무거여무주(無來無去亦無住라. 오고 감도 또한 머무름도 없는 자리를 향해 가는 자들에게 기약을 묻는 것이 부질없어 나 역시 그에게 언제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현실이 있었고 그 현실 속에는 끝 모를 지옥이 있었습니까.

다투고 쫓고 깨치고 그러다 허망하게 사라져 가는 인간의 군상들을 향해 지옥이라 단언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옥속에서 능히 극락을 보는 것이 만행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길로 다니는 만행의 서정성을 덮고 길 아닌 곳에서 길을 따라 헤매이는 이들 곁에 다가서 결손하게 그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광으로 만행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장의 깊은 어둠 속에 인생을 던지고 힘차게 땀이질을 할 때 출가와 수행과 길 잃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벌써 이 곳에 온지도 두 달이 넘습니다. 일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술에 취해 또 내일을 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편지를 쓰다보니 문득 산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산에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천호 합장.”

편지지의 지문은 씻어도 씻어도 씻기지 않는 손에 박힌 탄가루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 후 그는 소식을 없었다. 그 편지를 받고 1년쯤 지나 나는 다시 그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의 편

‘길’ 몰라 헤매는 중생들 알고자

탄광 막장과 원앙어선서 만행

지는 예전의 편지와는 달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알래스카 어디라고 적힌 그의 편지 주소를 보며 나는 그가 참 멀리 만행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산과 사찰을 떠돌다 탄광을 지나 먼 알래스카에서 연어잡이 배를 탄다는 그의 글을 보고 나는 그의 만행의 광활함에 그만 감탄하고야 말았다.

온통 추위와 얼음뿐인 곳에서 창가에 앉아 외로운 불빛 아래서 편지를 쓴다는 그의 글을 읽으며 나는 그가 왠지 하나의 별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늘에 떠다 소리 없이 내 가슴에 내려와 빛을 뿌리는 별.

나는 문득 그가 있는 알래스카에 가고 싶었다. 가서 함께 연어잡이 배를 타며 좀 더 명징하게 진실을 향해 항해하고 싶었다. 추위와 외로움과 시린 별 아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싶었다.

2년여의 만행을 마치고 그는 돌아왔다. 돌아올 때 모습은 산문을 나설 때의 모습과 다름없이 어깨에는 커다란 결망을 메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매는 그 전과는 달리 한없이 깊고 평화로웠다. 나는 그와 함께 법당으로 향했다. 화두와도 같은 만행을 타파한 자의 평화와 5월의 햇살처럼 내게 전해져 왔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그림·문병성

돌아올 것인가를 묻지 않았다. 나는 그 때 처음 알았다. 좋은 벗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얼마나 허허로워지는 기쁨...

그가 떠나고 몇 달이 지나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천호였다. 주소는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주소 없는 그 편지를 반가움과 기대를 가지고 뜯었다. 거뿔거뿔한 지문이 찍힌 한지 같은 편지였다. 그는 그의 만행에 대해 적고 있었다.

“저는 산문을 나서 정한 곳 없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산과 산 그리고 산사와 마을로 이어지는 길들은 내게 만행을 떠나길 잘 잡겠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길들은 서정하였고 꿈이었습니다. 그 길들 위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중이 되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서 배웠습니다. 마음에 욕심을 비우면 세상은 어디나 극락이라는 것을, 그래서 좋은 언덕에 극락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만행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벗어나면 극락은 너무도 먼 곳이었습니다.

홍삼의 기를 마시자!

홍삼메딕스

* 진차 홍삼은 누구에게나 맞고, 만병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족 건강...

- 홍삼메딕스는 일반 기계처럼 한번 켜 다용 한약다리 못 하는게 아니고, 케고 밀리코를 9번 반복하는 신비의 구동구조 비법을 최초로 과학화(경험과학화)한 것입니다. (신기술 발명특허출원 10 - 2003 - 0027351)
- 홍삼이라고 다 효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홍삼메딕스는 최고 품질의 홍삼원액을 가정에서, 저렴하게, 알맞게,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최선식 기계입니다.
- 홍삼메딕스에는 춘천옥 원석을 넣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氣)를 보장합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적이 있는 첫 번째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에는 항상성에서 이런 통찰력을 풍지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운길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 서 상상을 하거나 예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회복, 무뇌회복,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와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널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키오왕만 마르세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키오왕만 마르세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1일(토) ~ 4일(일)
 -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권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 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레이키 오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떤 만트라든 특유의 비법이 있고 (때론 바로 호모보이즘 원리를 능력치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어떤트는 우리의 운명을 단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 [한국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진)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山夢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蓼(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사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이겐 삼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여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蓼)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효력을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 아픈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 인파선이 나왔다.
- ◆ 변비가 나왔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전신쇠약이 없어졌다.
- ◆ 물이 부기가 빠졌다.
-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물사하는 마음으로 영기에 드리고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에 20만원에 드려졌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기 가능합니다.)

민양달인물(만삼갱지10kg, 영기, 잔대, 삼가구름조, 영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오희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 - 9242 - 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호사육임도서안내

활용서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재정비법 350,000
- 육임재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문명언어번역(영어·길일·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한글비디오포함) 300,000
- 육임재정비법 10,000
- 길흉상당지침록 20,000
- 육임재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학습서

- 호사 육임강의록 上(희승음)·下(홍승재) 410,000
- 육임강의비디오·CD 900,000
- 육임행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호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호사육」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육」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통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육」 063-284-7714
- 광주 매주 일요일 「광주육」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육」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육」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육」 053-624-8680

○ 호영기초·기본을 모르는 분들을위 각본 강의2시간전개 나오셔서서전 교육을받게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호사육임강의록 上, 下를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호사육」에서「분회회원실기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일금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선발 부문
 계좌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